

# “고향서 1군 데뷔 무산 아쉽다... 믿음직한 투수 되겠다”

육성 선수 출신 NC 김녹원  
KIA전 우천 취소 등판 불발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시즌 5차전이 비로 취소됐다. 어린이날 일정으로 9연전을 펼쳐야 하는 선수들에게는 반기운 ‘단비’였다. 많은 선수가 비를 반겼지만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경기장을 떠난 선수가 있었다.



이날 선발 등판을 준비했던 NC 김녹원(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김녹원에게는 간절하게 바란 오늘이었다. 육성 선수 신분이었던 김녹원은 5월 1일에 맞춰 22번 번호를 받고 정식 선수로 등록됐다. 그리고 이날 1군 선발로도 낙점됐다.

의를 불태웠다. 부모님도 오신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아쉽다”고 고향에서의 데뷔전 무산을 아쉬워했다.

1일은 1군 경험이 없는 김녹원이 선발로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 날이었다.

그는 긴장감보다는 기대감으로 데뷔전을 준비했다.

여기에 첫 무대로 준비됐던 챔피언스필드는 그가 프로야구 선수 꿈을 꾸던 익숙한 곳이다.

김녹원은 “아직 1군 경기가 없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다는 마인드로 배움이 생기는 피칭을 하고 싶었다. 불발할 하기보다는 안타 맞더라도 시원하게 맞고 그 안에서 부족한 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며 “포털 응원란을 보니까 ‘김녹원이 누구냐’ 이런 글이 많았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지만, 오늘 꼭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학창초에서 야구를 시작한 김녹원은 무등중-광주일고를 거쳐 2022년 2차 3라운드 선수로 NC 유니폼을 입은 광주 출신이다. 무등중 시절이었던 2018년에는 KIA 타이거즈가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 최우수선수상을 받기도 했었다.

고향에서 학창초 대선배를 상대로 한 꿈같은 데뷔전은 무산됐지만 새로운 시작을 한 만큼 김녹원은 믿음직한 NC 투수가 되겠다는 각오다.

야구 선수의 꿈을 꾸던 무대에서, 우상 같은 학창초 대선배 양현종과의 맞대결이었던 만큼 김녹원에게는 야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전부터 광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라운드 사정이 좋지 않았고, 비가 이어지면서 결국 경기가 취소됐다.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NC 다이노스 선수가 됐다. 옛정을 생각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며 자신을 기억하는 광주 야구팬들에게 인사를 전한 김녹원은 “제가 나오면 ‘NC는 오늘 편하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녹원은 “어릴 때부터 광주에서 야구를 했다. 무등경기장이나 챔피언스필드를 가장 오래 봐온 곳이기도 해서 운동할 때 들뜨고 긴장될 줄 알았는데 편찮았다. 긴장이 조금 덜 되고, KIA 응원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했다(웃음)”며 “어릴 때 던지는 상상을 했었다. 퓨처스에 있다가 1군 오니까 환경도 너무 좋고, 계속 여기에서 야구하고 싶다고 전

글/사진=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아사시가 지난 26일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과의 8강전에서 슛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 ‘아챔 여정’ 종료...이젠 K리그 정복이다

광주FC, 오늘 승점 1점차 4위 울산HD와 원정경기



실패를 통해서 배운 광주FC가 K리그 1 정복에 나선다. 광주FC는 2일 오후 7시 30분 울산FC 수송구경기장에서 울산HD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1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치며 박수를 받았다. 손 실패를 통해 또 다른 꿈을 꾸게 된 광주FC는 K리그에 집중하게 된다. 광주FC는 울산 원정을 통해 승수 쌓기를 재개한다. 광주에 동기부여가 되는 상대다. 현재 리그 10경기를 소화한 광주FC는 4승 4무 2패(승점 16)로 5위다. 두 경기를 더 치른 울산은 12경기에서 5승 2무 5패(승점 17)를 기록하면서 바로 앞 4위에 자리하고 있다. 광주FC 입장에서는 선두권 추격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대다. 또 김판관 감독 체제 전환 뒤 약세를 보였던 만큼 설욕전의 무대이기도 하다.

도 잡고 전력 상승도 이룬 광주는 ‘유리연합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정한 알 힐랄과의 맞대결을 통해 좋은 공부도 했다.

반면 울산은 4월 리그 6경기에서 2승 1무 3패의 성적을 작성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다번당 챔피언’에 어울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위기의 4월을 보냈다.

하지만 울산은 4연패에 도전하는 저력 있는 팀이다. 또 광주FC ACLE 강행군 속 사우디 원정까지 다녀왔던 만큼 체력적인 면에서도 울산이 앞선다. 큰 경기에서 경험을 쌓은 광주 선수들의 플레이와 함께 ‘적’으로 만나게 된 금고초 3인방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엄원상을 필두로 울산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이희균과 허율이 올 시즌 처음 친정팀을 상대하게 된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만큼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시 시작하는 광주가 11라운드 경기를 통해 ‘난적’ 울산을 잡고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7경기 연속 안타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7경기 연속 안타로 활약을 이어갔다.

뜬공으로 몰려난 이정후는 6회 강한 타구로 내야 안타를 만들었다.

이정후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타점을 수확했다.

0-4로 끌려가던 6회 2사 1-3루에서 타석에 선 이정후는 샌디에이고 선발 마이클 킹의 5구째 싱커를 잡아당겨 1루수 강습 타구를 만들었다.

이날 경기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319(116타수 37안타)가 됐다.

강한 땅볼 타구는 샌디에이고 1루수 루이스 아라에스의 글러브에 맞고 유격수 쪽으로 굴렀고, 그 사이 3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한창 방망이가 뜨거웠을 때와 비교하면 타격감이 다소 꺾였지만, 꾸준히 안타를 생산하며 7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갔다.

하지만 후속타 불발로 이정후는 홈에 돌아오지는 못했다.

이정후는 지난달 24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3안타를 쳤고, 이날 경기를 포함해 이후 6경기는 1안타씩 때렸다.

8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외야 왼쪽으로 빗맞은 타구를 날렸으나 샌디에이고 좌익수 제이슨 헤이워드에게 호수비에 걸려 아웃됐다.

1회 첫 타석 내야 뜬공, 4회 두 번째 타석 우익수

샌프란시스코는 샌디에이고에 3-5로 패해 2연패에 빠졌다. /연합뉴스

## FC바르셀로나-인터 밀란 난타전 끝 무승부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3-3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클럽 FC바르셀로나가 인터 밀란(이탈리아)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 첫판에서 세 골씩 주고 받는 난타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팅으로 만회 골을 터트렸다. 17세 291일의 아말은 UCL 준결승에서 골을 넣은 최연소 선수가 됐다.

바르셀로나는 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에스타디 올림피쿠 리우스 콤파니스에서 열린 2024-2025 UCL 준결승 1차전 홈 경기에서 인터 밀란과 3-3으로 비겼다.

이날 경기는 아말에게는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출전한 통산 100번째 경기였다.

바르셀로나는 2014-2015시즌 이후 10년 만이자 통산 여섯 번째 대회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아말은 가비가 보유하고 있던 바르셀로나 구단 최연소 100경기 출전 기록(19세 291일)도 새로 썼다.

인터 밀란은 2009-2010시즌 이후 15년 만이자 네 번째 우승을 노린다.

바르셀로나는 전반 38분 문전으로 쇄도한 페란 토레스의 오른발 슈팅으로 2-2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채 전반을 마쳤다.

두 팀의 운명은 결국 오는 7일 인터 밀란의 홈 경기로 열릴 2차전에서 갈리게 됐다.

후반 들어 18분 만에 다시 인터 밀란이 앞서나갔다. 코너리 상황에서 하칸 칼차놀루의 크로스를 문전에 있던 뮌헨이 머리로 상대 골문에 쏘았다.

킥오프 후속이 울린 지 30초 만에 인터 밀란 마르쿠스 튀람이 선제골을 뽑았다. UCL 준결승 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터진 골이었다. 인터 밀란은 전반 21분 뮌헨이 슈팅으로 2-0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인터 밀란의 기쁨은 이번에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러나 호락호락한 바르셀로나가 아니었다. 전반 24분 라인 아말이 상대 밀집 수비를 뚫고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지역 안까지 공을 뭉 뒤 왼발 슈

후반 20분 바르셀로나 하피냐의 왼발 중거리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빙글 뒤 인터 밀란 골키퍼 안종머의 몸에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가 다시 동점이었다.

이후 후반 30분 인터 밀란 헨리크 미키타리안의 골이 비디오판독 끝에 오프사이드로 무효가 되고 후반 42분 바르셀로나 아말이 또 골대를 맞으면서 결국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연합뉴스

## 호날두 뛰었지만...알나스르, 아챔 결승행 좌절

가와사키 프론탈레 결승 진출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버틴 사우디아라비아 부자 구단 알나스르를 꺾고 아시아 프로축구 정상에 이제 한 걸음만 남겨졌다.



가와사키 프론탈레 골키퍼가 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준결승전에서 알나스르 호날두의 공을 쳐내고 있다. /연합뉴스

가와사키는 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준결승전에서 알나스르를 3-2로 눌렀다.

가와사키의 한국 국가대표 출신 골키퍼 정성룡은 교체 선수 명단에 들었으나 출전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이로써 가와사키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이 대회 결승에 진출해 우승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알나스르는 후반 42분 아이만 아히야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만회 골을 뽑았지만 이는 가와사키 골문을 열지 못했다.

가와사키는 오는 4일 오전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팀인 알아흘리와 우승을 놓고 최후의 환판을 벌인다.

가와사키의 한국 국가대표 출신 골키퍼 정성룡은 교체 선수 명단에 들었으나 출전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1995년 한 차례 결승에 올라 준우승을 차지한 게 역대 최고 성적인 알나스르는 호날두를 비롯해 혼 두란, 사디오 마네, 오타비우 등으로 공격진을 꾸려 가와사키에 맞섰으나 결국 4강에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됐다.

그러고는 후반 31분 에리송이 상대 수비를 뚫고

페널티지역 안 왼쪽에서 공을 이어받은 마네가 상대 수비를 피해 중앙으로 드리블한 뒤 오른발로 슈팅한 공이 수비 맞고 살짝 굴절되면서 가와사키 골문으로 들어갔다.

전반 34분 호날두의 헤딩슛이 골대를 맞고 나

와 가슴을 쓸어내린 가와사키가 전반 41분 다시 앞서갔다.

이토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문전으로 드리블하다 수비 맞고 흐른 공을 오른발로 슈팅했으나 골키퍼 벤투에게 막혔고, 이어 유토 오제키가 왼발로 재차 차넣었다

전반을 2-1로 마친 가와사키는 후반 들어 알나스르의 파상공세에도 리드를 잘 지켜냈다.